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Characteristics of Teenage Unwed Mothers in Korea

윤 미 현*

Yoon, Mi Hyun

이 재 연**

Lee, Jae Yeon

Abstract

The focus of this research was to understan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regnancy conditions, social support, and future plan of teenage unwed mothers in Korea. Among the unwed mother, the teenage group was a higher percentage (53.7%) than the over-twenties group (46.3%). In the distribution of teenage unwed mothers, the major part, 94.6%, was in the 16- to 17- year-old age range, and 5.4% were under 15 years of age. This indicates that the age of unwed mothers is getting lower. Most teenage unwed mothers were from intact(72.3%) and/or low-class(62.3%) families. A significant percentage (37.7%) was from middle- and upper-middle class families, signifying that teenage pregnancy is not a problem only of disadvantaged and lower class families. The education of one-third of the teenage unwed mothers in this study was only up to first year of middle school(7th grade), indicating that pregnancy may be a reason they dropped out of school.

Key Words : 십대(teenage), 미혼모(unwed mother), 임신특성(pregnancy characteristics)

※ 접수 2002년 2월 28일, 채택 2002년 4월 24일

* 동국대학교 불교아동학과 강사, E-mail : yoonmi24@chollian.net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I. 서론

7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역기능 현상의 하나로서 서구의 성 개방 풍조가 급격히 밀어닥치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이성교제 기회가 많아지고,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이 만연해 짐에 따라 오늘날 미혼여성의 임신 및 10대 미혼모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기는 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고조되고 성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한영주, 1998)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는 어린 청소년들을 잠재적으로 성적으로 착취하게 만들 수 있는 '성적 자극물'의 방영을 통해 10대들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성정체감' 발달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evering, 1983). 실제로 Sylvester(1997)는 10대들은 TV나 대중매체에서의 환상적인 삶과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부족하며, 대중매체가 묘사하는 성과 청소년성행위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면서, 대중매체가 10대의 임신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 역시 대중매체의 성적 자극물의 영향과 성교육의 부재, 입시위주의 억압된 학교환경에 의해 임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임신된지도 모른 채 살이 찢다고 생각하거나 알아도 수치심 때문에 혼자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학교 화장실에서 갑자기 아기를 낳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부터 청소년의 임신 및 미혼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미혼모 특성 변화를 살펴볼 때 80년대는 전체 미혼모 수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데 반해, 90년대에 와서는 미혼모의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1996

년 서울시 부녀복지 연합회는 미혼모의 연령 중 15세에서 19세가 전체 48.3%라고 보고했는데(한영주, 1998) 이는 한국여성개발원이 1984년도에 발표한 24.8% 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서 90년대에는 10대 미혼모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20대 미혼모에 비해 10대 미혼모가 끼치는 영향은 보다 심각하다. 더구나 그 영향은 미혼모 당사자를 비롯해서 10대 미혼모가 낳은 아기, 10대 미혼모의 부모, 10대 미혼부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사회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된다. 또한 사회는 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복지적, 의료적, 법률적인 문제들을 나누어 부담을 져야만 한다(Wazak, 1990).

또한 10대 미혼모는 나이가 많은 미혼모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즉 10대 미혼모는 학업 중단으로 미래에 비전문직에 고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 중 18세 미만의 미혼모는 생물학적인 미성숙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임신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20세 이상의 미혼모들보다 크다(Roosa, 1991). 또 그로 인해 10대 미혼모들은 그들이 아기를 키우게 될 경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심한 학대와 방임의 가능성까지 지니게 된다(Donnelly & Voydanoff, 1991).

한편 10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사생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0대 미혼모의 부적절한 산전관리와 불충분한 영양섭취 등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저 체중아, 조산아, 선천적 결함아가 되기 쉽고, 10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역시 자라서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Levering, 1983).

이처럼 미혼모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미혼모 자신 및 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10대 미혼모의 발생은 억제되어야만 한다. 10대 미혼모발생을 막거나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의 임신원인 및 동기를 비롯해서 미혼모가 임신하는데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을 밝혀야만 한다. 그동안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미혼모 연구 경향을 분석해 볼 때 미혼모 연구들은 미혼모들을 경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관련 입양기관, 혹은 미혼모기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강영숙·이임정, 1976; 김근조, 1984; 양인순, 1988; 이석재, 1985; 이성하, 1989; 유유박, 1980), 다른 연구의 조사자료를 재이용하여(강순천, 1989; 이금주, 1994; 장소영, 1976; 황옥자·윤미현, 1996) 미혼모의 일반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복지 적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연구자가 미혼모시설에 입주해 있는 미혼모들을 통해 경험적 연구를 한 경우에도 미혼모의 연령, 학업, 가정환경, 미혼부 특성 등 단편적인 미혼모 특성을 조사하거나(주연옥, 1997), 미혼모의 교육프로그램 요구도(김영숙, 1998) 등을 알아보는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10대 미혼모의 임신 문제는 이들 중 어느 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 및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 등의 가정환경요인(Pitterman, 1986)과 동료집단의 개방적인 성 태도 등의 개인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제시되고 있다(박홍주, 1993). Moore(1990) 역시 혼전 임신은 가정 환

경 요인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포함한 역사적 범주와 생태학적 구조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맥락의 틀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10대 미혼모의 특성만을 따로 분리하여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10대 청소년들의 임신을 예방하고 10대 미혼모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10대 미혼모들이 임신에 이르게 하는 여러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미혼모 연구가 20대 미혼모를 포함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 10대 미혼모들의 특성이 20대 미혼모특성과 차이가 있는 집단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 10대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 2) 10대 미혼모의 첫 성 관계경험, 이전의 임신경험 및 성폭행, 성 학대 경험, 현재 임신정황 및 아기아버지와의 관계, 임신 후 사회적지지, 출산 후 장래 계획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 3) 10대와 20대 미혼모들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시설(1999)에 수록된 6개 미혼모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미혼모 170명과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일람표(1999)에 나타나 있는 아동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4개 아동 일시보호 소에 상담을 의뢰하고자 하는 미혼모 72명으로 총 242명이다. 대상선정 기준에 포함된 6개 미혼모 시설은 서울의 1곳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강원도에 각각 1개소씩 위치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조금에 의해 미혼모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복지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6개소를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확률적 표집 중 군집 표집의 일종으로, 이 방법에 의한 표집은 비교적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은 전국적인 표본을 얻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아동 일시보호소의 경우 성가정입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국사회봉사회,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4개소는 모두 국내외 입양을 상담하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4대 입양기관에 속한다.

3. 측정도구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여성개발원(1984)에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 및 그들의 가족관계, 첫 성관계 경험, 아기가 아버지와의 관계, 장래계획을 묻기 위해 사용한 질문지를 한영주(1998)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였으며, 이

밖에 모든 질문지는 단일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0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이므로 그들의 연령에서 내용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또는 선택에 적절한 보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을 수정했으며, 예비조사 대상 학생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중고교생들로서 연령은 13세에서 16세 범위에 속한다. 본 조사는 8개소 미혼모시설과 5개소 아동전문상담기관에 1차 적으로 우편으로 공문을 통한 질문지 응답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전화를 통한 협조요청결과, 질문지 협조를 허락한 미혼모시설 6개소와 아동상담기관 4개소에 우편과 직접방문을 통해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방문을 통해 직접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질문지 응답에 걸린 시간은 약 30분에서 40분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본 연구 자료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된 질문지수 총242부 중 10대 미혼모를 위한 질문지수는 130부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미혼모 보호시설 및 아동상담기관별 표본 수와 질문지에 포함된 항목의 영역별 문제 수는 <표 1>, <표 2>와 같다.

인애복지원과 에스더의 집의 현 원은1999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의 “여성복지시설현황”에 보고된 현 원을 명시한 것인데, 연구시점인 2000년 1월 5일경 전화로 두 곳 미혼모의 집의 현 원을 확인한 결과 인애복지원은 27명, 에스더의 집은 32명의 미혼모가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질문지를 배포했고, 특히 이 두 곳의 시설종사자들은 마리아의 집과 함께 처음부터 질문지 응답과 수거에 적극적인

<표 1> 미혼모 보호시설 및 아동상담기관 별 표본 수

시설 명	소재지	정원 (명)	현원 (명)	질문지 수	응답자 수(%)	10대 미혼모 수(%)
구세군여자관	서울	35	32	32	15(47)	8(53)
마리아모성원	부산	50	38	30	29(97)	22(76)
대구혜림원	대구	50	47	43	39(91)	21(53.8)
인에복지원	광주	30	18	27	27(100)	12(44)
에스터의 집	경기	50	31	32	32(100)	10(31)
마리아의 집	강원	40	29	28	28(100)	13(46)
한국사회봉사회	서울	200	158	35	10(29)	2(20)
동방사회복지회	서울	101	77	35	21(60)	12(57)
홀트아동복지회	서울	50	32	35	22(63)	11(50)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30	51	35	19(54)	19(100)
합계	13	831	609	332	242(73)	130(53.7)

협조(응답률 100%)를 보여주었다. 현 원 600명이라는 숫자는 미혼모의 집은 보호되고있는 미혼모 숫자만 표시된 것이지만 한국사회봉사회,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는 미혼모 이외에 요 보호아동이 포함된 숫자다. 왜냐하면 이 4기관은 아동복지 및 상담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일람표”에 소개되어 있어 그것을 참조했기 때문에 현원이 실제 미혼모 수 보다 많았고, 100%의 응답률을 보인 3곳을 빼고는 대체로 질문지 응답에 부정적이었고, 그 기관에서 보내라는 숫자만 보냈기 때문에 현 원과 차이가 있었다. 특히 기관에서 질문지 응답을 허락한 경우에도 미혼모들 중 응답을 원치 않는 경우는 누락됐고, 기관의 협조나 특히 상담자들이 얼마나 미혼모 문제를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응답률이 크게 차이를 보였다.

영역별 조사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 속에는 10대 미혼모의 결혼상태, 부모님생존여부, 가족수입, 학력, 종교 등이 포

<표 2> 10대 미혼모 특성연구를 위한 영역별조사항목

영역	문제 수
미혼모의 사회인구 적 특성	5
첫 데이트 연령 및 첫 성관계연령	2
첫 성관계 경험	3
임신 경력 및 임신처리문제	3
성폭행 대상자	2
현재임신정황 및 피임하지 않은 이유	5
아기아버지와의 관계	10
임신 후 사회적지지	6
출산 후 아기의 장래계획	2
출산 후 10대 미혼모 장래계획	3
계	41

함되어 있고, 첫 성관계 경험 속에는 첫 경험 대상자와의 관계, 첫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 느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임신정황 속에는 현재임신 상태, 임신사실을 처음 알게된 시기, 임신을 알았을 때의 느낌이 포함되어 있고, 아기아버지와의 관계 속에는 아기아버지의 나이, 학력, 직업, 혼인상태, 성 관계를 가진 직접적인 동기 및 임신사실을 아기아버지에게 알렸는가 등의 질문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임신 후 사회적지지 속에는 가족들의 조치 및 학교, 직장의 조치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런 항목은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10대 미혼모의 사회인구 적 특성 및 임신정황, 사회적지지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선택됐으며, 관련학과의 10인 이상의 박사과정 및 박사들에 의한 안면 타당 도를 실시해서 최종선택됐다.

4. 자료분석

우리나라 10대 미혼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 백분율을 알아

보았다. 또한 두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χ^2 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10대 미혼모의 특성

1) 10대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본 연구의 전체 미혼모의 연령분포를 보면 10대가 130명으로 53.7%, 20대 이상이 112명으로 46.3%를 차지하고 있어 20대 미혼모 보다 10대 미혼모 비율이 더 높았다. 10대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10대 미혼모의 연령분포를 세분화하면, 18세 미혼모가 35.4%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19세 21.5%, 17세 21.5%, 16세 16.2%, 15세 4.6%순 이었으며 14세 이하도 0.8%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16-19세가 94.6%, 14-15세가 5.4%로 10대 미혼모연령은 16세에서 19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0대 미혼모의 결혼상태는 83.1%가 미혼상태이고, 나머지는 별거 0.8%, 기타 14.6%, 무응답 1.5%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혼으로 아기를 갖게되거나 기혼녀로서 별거, 이혼, 사별상태에서 배우자 이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까지를 미혼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미혼모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양친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정상가정 출신이 71.5%로 대부분의 10대 미혼모들이 정상가정 출신이다.

10대 미혼모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가족수입은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가 62.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저소득가정 출신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중류이상도 37.7%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63.8%로 대부분 10대 미혼모들은 고교 중퇴 및 졸업의 학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중퇴 및 졸업도 30%로 나타나고 있다. 10대 미혼모들은 종교가 없다가 40.8%, 있다가 59.2%로 종교가 있는 미혼모수가 조금 더 많았다.

<표 3> 10대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130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연령 분포	14세	1(0.8)	결혼 상태	미혼	108(83.1)
	15세	6(4.6)		별거	1(0.8)
	16세	21(16.2)		기타	19(14.6)
	17세	28(21.5)		무응답	2(1.5)
	18세	46(35.4)			
	19세	28(21.5)			
부모님 생존여부	두 분다 생존	94(72.3)	가족 50만원 미만	수입 51-100만원	15(11.5) 29(22.3)
	친부	6(4.6)	101-150만원	37(28.5)	
	친모	13(10)	151-200만원	18(13.8)	
	친부와 계모	9(6.9)	201-250만원	8(6.2)	
	친모와 계부	1(0.76)	251-300만원	5(3.8)	
	두 분다 안 계심	6(4.6)	301-350만원	7(5.4)	
	무응답	1(0.76)	350만원 이상	6(4.6)	
			무응답	5(3.0)	
학력	중학교중퇴 및 졸	41(31.6)	종교 없다	불교	53(40.8) 35(26.9)
	고등학교중퇴 및 졸	80(61.5)	기독교	31(23.8)	
	대학중퇴 및	3(2.3)	천주교	11(8.5)	
	전문대졸	6(4.6)			
	기타				

10대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들의 연령은 비교적 낮으며, 10대 미혼모는 결손가정이나 저소득가정 출신만이 아니라 일반가정의 모든 10대

들에게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며, 이들의 임신 연령이 낮음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 10대 미혼모의 현재임신의 정황과 임신 후 사회적 지지 및 장래계획

(1) 첫 성관계 경험과 이전의 임신경험 및 성폭행이나 성 학대경험

① 첫 성관계 경험

10대 미혼모의 첫 데이트 연령 및 첫 성관계 경험은 <표4>와 같다. 10대 미혼모의 첫 데이트 연령은 19세 이하가 57.7%로 가장 많았고, 15세 이전에 첫 데이트 한 미혼모들도 41.6%를 차지하고 있다.

첫 성관계 연령은 16세에서 19세 사이가 73.1%로 대부분 이들은 16세에서 19세 사이에 첫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성관계 경험 대상자는 가볍게 만나던 사이가 56.9%, 처음 만난 사이가 6.9%로, 63.8%의 미혼모가 가볍게 만나던 이성 혹은 처음 만난 이성과 첫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성 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41.5%,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36.2% 순으로 나타났다. 첫 성관계를 가진 후의 느낌은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아쉬움 42.3%, 상실감과 죄책감 19.2%등 61.5%는 첫 성관계에 대한 아쉬움, 상실감, 죄책감 등 부정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10대 미혼모의 첫 성관계 경험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첫 데이트를 경험하며, 이런 어릴 때부터의 이성에 대한 성적 관심을, 처음 혹은 가볍게 만나던 이성을 대상으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쉽게 행동으로 옮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첫 성관계를 가진 후의 느낌을 대부분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아

쉬움 상실감, 죄책감 등 부정적인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어, 10대들에 대한 앞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표 4> 10대 미혼모의 첫 데이트 연령 및 첫 성관계 연령 N=130

변 인	구 분	빈도(%)
첫 데이트 연령	13세 이하	4(3.1)
	15세 이하	50(38.5)
	19세 이하	75(57.7)
	무응답	1(0.8)
첫 성관계 연령	13세 이하	3(2.3)
	15세 이하	26(20.0)
	19세 이하	95(73.1)
	모름	3(2.3)
	무응답	3(2.3)
첫 경험 대상자와의 관계	가볍게 만나던 사이	74(56.9)
	결혼상대로 꾸준히 만나던 사이	14(10.8)
	성폭행(강간) 및 성 학대	14(10.8)
	처음 만난 사이	9(6.9)
	친인척	3(2.3)
	기타	16(12.3)
첫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	순간적인 충동으로	54(41.5)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47(36.2)
	강간에 의해서	18(13.8)
	결혼하자고 하기에	2(1.5)
	상사라 손해가 있을까봐 어쩔 수없이	1(0.8)
	기타	8(6.2)
첫 성관계를 가진 후 느낌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아쉬움	55(42.3)
	상대방과 더욱 친밀감을 갖게됨	27(20.8)
	상실감과 죄책감	25(19.2)
	흔히 일어나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	18(13.8)
	기타	5(3.8)

② 10대 미혼모의 이전의 임신경험 및 성폭행 혹은 성 학대경험

10대 미혼모의 이전의 임신경험 및 성폭행 혹은 성 학대 경험은 <표 5>와 같다. 10대 미혼모 중 77.7%는 이전에 임신한 경험이 없는 첫 번째 임신이었지만 반복임신 비율도 22.3%

를 나타내고 있다. 반복임신 비율은 한번 임신이 65.5%, 두 번 27.6%, 세 번 혹은 그 이상 6.9%순이었다. 이전 임신에 대한 아기의 처리는 86.2%의 미혼모들이 인공유산을 시켰다고 응답하여 이들이 주로 인공유산을 임신해결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대 미혼모들의 성폭행이나 성 학대 경험은 26.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성폭행에 의한 미혼모 발생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성폭행 혹은 성 학대를 한 대상자가 우연히 만난 사람 35.3%, 불량배 20.6%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집안친척에 의한 성폭행 비율도 11.8%를 나타내고 있어 집안친척에 의한 근친간의 성 윤리도 문제 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10대 미혼모의 이전의 임신경험 및 성폭행이나 성 학대 경험 N=130

변 인	구 분	빈도(%)
이전에 임신한 경험	없다	101(77.7)
	있다	29(22.3)
	한 번	19(65.5)
	두 번	8(27.6)
	세 번 혹은 그 이상	2(6.9)
이전임신에서 아기문제의 처리	인공유산 시켰다	25(86.2)
	입양시켰다	1(3.4)
	기 타	3(10.3)
	무응답	101(0)
성폭행이나 성학대 경험 유무	없다	96(73.8)
	있다	34(26.2)
성폭행 혹은 성 학대를 한 대상자	우연히 만난 사람	12(35.3)
	불량배	7(20.6)
	집안 친척	4(11.8)
	친구나 애인	2(5.9)
	학교 선생님	1(3.0)
	기 타	8(23.5)
	무 응 답	96(0)

(2) 현재 임신의 정황 및 아기아버지와의 관계

① 현재임신의 정황

10대 미혼모의 현재임신에 대한 정황은 <표

6>과 같다.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10대 미혼모들은 임신 8-9개월이 33.1%, 분만 상태가 31.5%, 임신 10개월 26.2%순으로 이들은 대부분 분만시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미혼 모시설이나 아동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미혼모들은 임신 사실을 안 시기가 실질적으로 인공유산이 불가능한 5개월 이상이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공유산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임신사실을

<표 6> 현재임신의 정황 N=130

변 인	구 분	빈도(%)
현재 임신상태 혹은 분만 상태	임신 4-5개월	5(3.8)
	임신 6-7개월	6(4.6)
	임신 8-9개월	43(33.1)
	임신 10개월	34(26.2)
	분 만	41(31.5)
	무 응 답	1(0.8)
임신사실을 처음 알게된 시기	임신 후 1-2개월	27(20.8)
	임신 후 3-4개월	58(44.6)
	임신 후 5-6개월	25(19.2)
	임신 후 7개월 이후	18(13.8)
	모름	1(0.8)
	무 응 답	1(0.8)
임신된 사실을 알았을 때의 느낌	두려웠다	81(62.3)
	죽고싶었다.	29(22.3)
	기뻐다	5(3.8)
	분노했다	4(3.1)
	기타, 무응답	11(8.5)
피임하지 않은 이유	피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54(41.5)
	피임기구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30(23.1)
	피임기구가 없어서	21(16.2)
	아기를 갖기 위해서	7(5.4)
	기타	16(12.3)
	무응답	2(1.5)
인공유산 하지 않은 이유	돈이 없어서	44(33.8)
	임신사실을 모르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41(31.5)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31(23.8)
	유산에 대해 잘 몰라서	5(3.8)
	혼자서라도 키우려고	1(0.8)
	기 타	7(5.4)
무응답	1(0.8)	

모르고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 31.5%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 또한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가 피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41.5%, 피임기구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3.1%, 피임기구가 없어서 1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대 미혼모들이 성이나 임신, 피임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임신과 출산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 결과다.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의 느낌은 두려움 62.3%, 죽고싶음 22.3%, 기쁨 3.8%, 분노 3.1% 순이었다.

② 아기아버지와의 관계

10대 미혼모와 아기아버지와의 관계는 <표 7>과 같다. 첫 성 관계 대상과 아기아버지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59.2%로, 같다고 응답한 40.8% 보다 많았다. 아기아버지를 만나게 된 경위는 친구소개가 57.7%로 가장 많았고, 우연히 만남 24.6%, 직장에서 만남 8.5% 순이었다. 아기아버지 나이는 20-24세가 47.7%로 가장 많았지만 19세 이하도 37%나 되었다. 아기아버지의 혼인상태는 79.2%가 미혼이었다.

아기아버지 학력은 고등학교중퇴 및 졸업 58.5%, 대학중퇴 및 전문대졸업이상이 8.5%로 67%가 고등학교 중퇴이상 이었다. 아기아버지 직업은 무직 및 가사가 26.2%, 피고용인 12.3%, 단순 노동 직 10.8%등 49.3%가 하위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7.7%로 이들은 상대남성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알기도 전에 성 관계부터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기아버지와 성관계를 갖게된 직접적인 동기는 사랑하는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55.4%, 순간적인 충동으로 24.6%, 성폭행이나 성 학대에 의해 6.9%, 결혼하자고하기에 6.2% 순 이었다.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는 64.6%의 미혼모들이 아기아버지에게 알렸으며, 알리지 않은 경

우에 그 이유는 이미 헤어진 뒤라 28.3%,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21.7%,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서 21.7%등의 순서였다. 알고 난 후의 아기아버지의 태도는 유산시키라고 했다 26.2%, 결혼하자고 했다 23.8%, 입양시키라고 했다 14.3%, 소식이 끊어졌다 9.5%, 헤어지자고 했다 4.8%, 아기아버지가 기르겠다고 했다 4.8% 순이었다.

<표 7> 아기아버지와의 관계 N=130

변 인	구 분	빈도(%)
첫 성관계 대상과 아기아버지와의 관계	같은 사람이다	53(40.8)
	같은 사람이 아니다	77(59.2)
현재 임신(출산포함)의 아기 아버지를 만나게된 경위	친구의 소개로 만남	75(57.7)
	우연히 만남	32(24.6)
	직장에서 만남	11(8.5)
	친척과 함께 만남	1(0.8)
	기타	11(8.5)
아기 아버지의 나이	15세 이하	1(0.8)
	19세 이하	47(36.2)
	20-24세	62(47.7)
	25-29세	12(9.2)
	30세 이상	3(2.3)
	모름	5(3.8)
임신을 알고 난 후의 아기아버지의 태도	유산시키라고 했다	22(26.2)
	결혼하자고 했다	20(23.8)
	입양시키라고 했다	12(14.3)
	소식이 끊어졌다	8(9.5)
	자기아이임을 부인했다	5(6.0)
	헤어지자고 했다	4(4.8)
	아기아버지가 기르겠다고 했다	4(4.8)
	아기엄마가 키우라고 했다	1(1.2)
	기타	8(9.5)
무응답	46(0)	
아기아버지의 학 력	중학교중퇴 및 졸업	17(13.1)
	고등학교중퇴 및 졸업	76(58.5)
	대학중퇴 및 전문대 졸업	10(7.7)
	대학교졸업	1(0.8)
	기 타	26(20.0)

<표 7> 계속

아기아버지의 직업	무직 또는 가사	34(26.2)
	피고용기능직	16(12.3)
	단순 노동 직	14(10.8)
	교사 및 사무기술직	7(5.4)
	자영업자	5(3.8)
	관리직	1(0.8)
	모름	49(37.7)
무응답	4(3.1)	
아기아버지의 혼인상태	미혼	103(79.2)
	기혼	3(2.3)
	사별	1(0.8)
	모름	22(16.9)
무응답	1(0.8)	
아기아버지와 성관계를 갖게된 직접적인 동기	사랑하는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72(55.4)
	순간적인 충동으로	32(24.6)
	성폭행이나 성 학대에 의해	9(6.9)
	결혼하자고 하기에	8(6.2)
	직업상 어쩔 수 없어서	2(1.5)
	상대방이 상사여서 어쩔 수 없이	2(1.5)
기타	5(3.8)	
임신사실을 아기아버지에게 알렸는가	알렸다	84(64.6)
	아니다	46(35.4)
아니라고 답한 이유	이미 해어 진 뒤라 어디 있는지 몰라서	13(28.3)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10(21.7)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서	10(21.7)
	아기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4(8.7)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서	2(4.3)
	정서적으로 아기아버지가 미워서	2(4.3)
	기타	5(10.9)

아기아버지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10대 미혼 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고교중퇴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하위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결혼까지 기다리지 않고 성관계부터 하는 성 개방 풍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혼전 임신과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려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3) 임신 후 사회적 지지

임신 후 사회적 지지는 <표 8>과 같다. 임신 사실을 안 후 상의한 사람은 가족이나 친척 29.2% 보다는 친구가 51.5%로 더 많았으며,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은 사람도 10%나 되었다. 임신사실을 가족이 알게된 경위는 우연히 알게되었다가 35.4%, 말하지 않았다 22.3%로 본인이 알린 경우 28.5% 보다 우연히 알게된

<표 8> 임신 후 사회적지지 N=130

변인	구분	빈도(%)
임신 후 누구와 상의했나	친구	67(51.5)
	가족이나 친척	38(29.2)
	아무와 상의하지 않았다	13(10.0)
임신한 사실을 가족이 알게된 경위	기타	12(9.2)
	말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알게되었다	46(35.4)
	본인이 알렸다	37(28.5)
	말하지 않았다	29(22.3)
가족이 알게된 경우 가족의 반응	기타	17(13.1)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주었다	96(73.8)
가족 중 어머니의 임신에 대한 예상 조치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	34(26.2)
	입양을 위해 아기를 포기하게 했을 것이다	72(55.4)
	아기아버지와 결혼해 함께 키울 것을 권유	27(20.8)
	그밖에 아기를 키우기 위한 여러 조치 강구	7(5.4)
	아기아버지에게 아기양육만이라도 책임지게 함	4(3.1)
임신에 대한 학교의 조치	남아서 혼자 기르라고 권유	2(1.5)
	기타, 무 응답	18(13.8)
	학교에서는 몰랐다	26(47.3)
	퇴학하라고 했다	6(10.9)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만 스스로 자퇴	6(10.9)
	도와 주셨다	6(10.9)
임신에 대한 직장의 조치	휴학하라고 했다	3(5.5)
	기타	8(14.5)
	무 응답	75(0)
	직장에서는 몰랐다	19(43.2)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만 스스로 그만둘	11(25.0)
	도와주셨다	4(9.1)
임신에 대한 직장의 조치	퇴직하라고 했다	2(4.5)
	휴직하라고 했다	1(2.3)
	기타	7(15.9)
	무 응답	86(0)

경우와 말하지 않은 경우가 57.7%로 더 많았다. 그러나 일단 가족들이 임신사실을 안 이후에는 무관심이나 냉대보다는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준 경우가 73.8%로 더 많았다.

또한 임신 사실을 안 후 어머니의 아기에 대한 조치는 입양시키기 위해 아기를 포기하게 했을 것이다가 55.4%로 가장 많았지만, 아기와 버지와 결혼해서 함께 키우게 했을 것이다 20.8%,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여러 조치를 강구했을 것이다 5.4%순으로 어머니는 딸의 출산에 대해 도움을 주려는 조치를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사실에 대해 학교는 전혀 몰랐다 47.3%, 퇴학 10.9%, 휴학 5.5%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직장의 조치 역시 몰랐다 43.2%, 스스로 퇴직 25%, 도와줌 9.1%, 퇴직권고 4.5% 순으로 나타나 학교나 직장은 이들에게 별다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출산 후 장래계획

출산 후 아기 및 미혼모의 장래계획은 <표 9> <표 10>과 같다. 출산 후 10대 미혼모의 아기에 대한 계획은 입양이 76.9%, 양육하겠다는 9.2%로 대부분 입양을 선택했다.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가 36.9%, 아기의 장래를 위해서 20.8% 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학교를 계속 해야하므로 라고 응답한 사람도 13.1%로 이들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입양을 선택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도 우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사람이 57.7%로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10대 미혼모들은 입양을 결정했다라도 모자시설이 있으면 이용하겠다고와 아기를 맡길 임시위탁시설이 있다면 여건이 마련된 후 데려다 키우겠다고 각각 42.3%, 36.2%나 되었다.

<표 9> 출산 후 아기의 장래계획 N = 130

변 인	구 분	빈도(%)
출산 후 아기에 대한 계획	입양시키겠다	100(76.9)
	모르겠다	16(12.3)
	미혼 부와 같이 키우겠다	9(6.9)
	미혼 부에게 보내겠다	2(1.5)
	혼자 키우겠다	1(0.8)
	기타, 무 응답	2(1.5)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이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48(36.9)
	아기의 장래를 위해서	27(20.8)
	학교를 계속해야 하므로	17(13.1)
	미혼 부와 헤어졌으므로	10(7.7)
	미혼 부와 결혼할 여건이 안 되므로	9(6.9)
	주위의 시선 때문에	7(5.4)
	아기에게 애착이 없어서	4(3.1)
기타	8(6.2)	

<표 10> 출산 후 10대 미혼모 장래계획

N = 130

변 인	구 분	빈도(%)
앞으로의 미혼모 계획	우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48(36.9)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	27(20.8)
	취업하고 싶다	23(17.7)
	자립하고 싶다	14(10.8)
	아기아버지와 결혼하고 싶다	10(7.7)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새 출발하고 싶다	2(1.5)
	기타	6(4.6)
입양을 결정했다라도 모자 보호시설이 있으면 이용하겠는가	아니오	73(56.2)
	예	55(42.3)
	무 응답	2(1.5)
아기를 맡길 임시위탁시설이 있다면 여건이 마련된 후 데려다 키우겠는가	아니오	82(63.1)
	예	47(36.2)
	무 응답	1(0.8)

<표 11>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차이

변	인	10대(N=130)	20대(N=112)	χ^2 값
		N(%)	N(%)	
결혼 상태	미혼	108(84.4)	97(87.4)	3.53 (df=3)
	이혼, 별거	1(0.8)	1(0.9)	
	사별	0(0.0)	2(1.8)	
	기타	19(14.8)	11(9.9)	
부모님 생존여부	두분 생존	93(72.1)	70(62.5)	6.52 (df=3)
	편부모	19(14.7)	31(27.7)	
	양부모	11(8.5)	6(5.4)	
	두분다않계심	6(4.7)	5(4.5)	
가족 수입	50-150만원	81(62.3)	66(58.9)	2.97 (df=3)
	151-300만원	31(23.8)	35(31.3)	
	301만원 이상	13(10.0)	6(5.4)	
	무응답	5(3.8)	5(4.5)	
학력	중학중퇴, 졸 이하	41(31.5)	10(8.9)	29.49*** (df=4)
	고교중퇴, 졸 이하	80(61.5)	78(69.6)	
	대중퇴, 전문대졸이하	3(2.3)	18(16.1)	
	대졸 이하	0(0.0)	1(0.1)	
	기 타	6(4.6)	5(4.5)	
종교	무 교	53(40.8)	44(39.3)	6.13 (df=3)
	불 교	35(26.9)	19(17.0)	
	기독교	31(23.8)	41(36.6)	
	천주교	11(8.5)	8(7.1)	

3) 10대 와 20대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 인 차이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요인들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이전에 본 연구에서는 <표 11>에서처럼 우선 두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의 분석을 통해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두 집단은 연령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학력에만 차이가 있을 뿐, 이들의 결혼상태, 부모님 생존여부, 수입, 종교적으로는 서로 의의 있는 차이가 없는 동일 집단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직접조사방법을 통해 10대 미혼모의 특성 및 임신 정황 등을 파악하여 10대 청소년들의 임신예방과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했다.

그러므로 연구문제별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10대 미혼모 특성

(1) 10대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전체 미혼모연령분포 중 19세

이하 미혼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53.7%, 20세 이상의 미혼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46.3%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미혼모 연령분포를 세분화하면 16-19세가 9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14-15세 미혼모도 5.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연령이 무척 낮음을 알 수 있다. 10대 미혼모 결혼상태는 83.1%가 미혼상태이며, 양친과 사는 정상가정출신이 71.5%이고, 62.3%가 저소득 출신이지만 중류이상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10대 미혼모도 3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미혼모들은 고교 중퇴 및 졸업이 63.8%로, 대부분 고교중퇴 이상의 학력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중학교중퇴 및 졸업도 3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임신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10대 미혼모들은 종교가 있다 59.2%, 없다 40.8%로 종교가 있는 미혼모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유무는 10대 미혼모임신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 중 미혼모 연령분포에서 19세 이하 미혼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53.7%로 나타난 결과는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9세 이하 미혼모가 24.9%라고 보고한 것 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1996년 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에서 보고한 48.3%보다는 많고, 1997년 주 연옥이 보고한 59.7%보다는 약간 적은 숫자다. 10대 미혼모 발생비율은 <표 1>에서도 보고한 것처럼 약간의 지역차이를 보이는데 주 연옥(1997)의 조사가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조사시기의 그 지역 10대 미혼모발생 비율이 높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10대 미혼모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결과는 비록 인구비율은 다르지만 미국의 1983년에 일반적인 출산율은 감소되었지만 10대 임

신은 꾸준히 증가하여 그 해 15-19세의 임신소녀가 백만 명이 넘고, 15세보다 어린 임신소녀가 3만 명(3%) 이상이라고 보고한 Levering (198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 것으로 우리나라 10대 미혼모 연령분포는 점차 미국의 양상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선진국가 중 10대의 출산율과 낙태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Jones, 1986; 재인용) 이런 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10대의 출산과 낙태의 증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10대 미혼모의 결혼상태는 대부분 미혼상태이며, 양친과 사는 정상가정출신이 71.5%이고, 62.3%가 저소득 출신이지만 중류이상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10대 미혼모도 3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Adams, Taylor와 Pittman(1989)의 연구와도 일치된 결과인데 이들은 1988년 미국의 18-19세 사이의 임신 모 중 대부분은 미혼이고, 전체 미혼모 중 3%는 19세 이하의 미혼모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10대 미혼모 중 3%는 가난하지 않으며, 3%는 백인이고 도시출신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Douglas(1997)의 연구에서 정상가정 출신보다 편부모와 사는 결손가정출신의 청소년들이 10대 미혼모가 될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본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다. 그러나 Douglas(1997)의 경우 그의 연구결과를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라기보다는 그는 가난하지 않은 10대의 임신비율이 가난한 10대 임신비율보다 더 높지만, 10대 임신은 특히 가난한 10대와 소수민족들에게 보다 불균형한 영향을 주는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Douglas는 가난한 소수민족의 10대들이 낙태보다는 아기를 출산할 가능성이

크며, 출산 전까지 결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Adams, Taylor & Pittman, 1989) 혹은 인이나 가난한 가정출신의 경우 10대 임신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며, 그만큼 10대 미혼모로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10대 미혼모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정상가정 출신의 10대 청소년은 물론이고, 특히 결혼가정 및 저소득가정 출신청소년들의 성가치관 및 성 행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성가치관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10대 미혼모의 임신에 의해 학업중단의 문제가 나타난 결과는 Cicchetti와 Garnezy(1993), Douglas(1997), Saltz와 Ager's(1997) 등이 임신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문제를 미국의 10대 미혼모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한 것과 일치된 결과다. 또한 Barro(1984)가 10대 미혼모의 50%, 10대 미혼 부의 30%는 임신 후 고교를 중퇴한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이 같은 10대 미혼모나 미혼 부의 중학교 중퇴 혹은 고교중퇴는 앞으로 이들이 고졸업자 보다 소득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고 이들의 학업중단으로 인해 미래사회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Barro, 1984)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대 미혼모들은 종교가 있다 59.2%, 없다 40.8%로 종교가 있는 미혼모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유상렬(1979) 연구의 84%, 김부자(1986) 연구의 60.5%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차이가 나는 결과다. 이런 차이는 유상렬, 김부자 연구가 각각 70년대, 8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시대의 미혼모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두 연구 모두 20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

나는 차이로도 볼 수 있다.

(2) 10대 미혼모의 임신정황과 임신 후 사회적 지지 및 장래계획

본 연구에서 10대 미혼모의 첫 성관계 연령이 16-19세 사이가 73.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15세 이하도 26.9%나 되어 이들의 첫 성관계 연령이 무척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첫 성관계 대상자는 가볍게 만나던 사이(56.9%), 처음 만난 사이(6.9%)가 63.8%로 나타났다, 첫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은 순간적인 충동(41.5%), 사랑하는 사이여서 자연스럽게(3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10대 미혼모들은 어린 나이에 이성에 대한 성적관심을 가지며, 이런 이성에 대한 성적관심을 처음 혹은 가볍게 만난 이성을 대상으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쉽게 행동으로 옮긴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0대 미혼모 중 77.7%는 첫 임신이지만 이전에 한번이상 임신한 경험이 있는 반복임신비율이 22.3%로 나타났고, 86.2%가 이전임신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유산을 선택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0대 청소년들의 낙태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행이나 성 학대 경험은 26.2%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고, 성폭행 대상자중 11.8%가 집단친척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집단친척에 의한 근친간 성 윤리도 문제시되고 있다.

이런 10대들의 성관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결과는 Morgan, Chapar와 Fisher(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은 임신경험이 있는 그룹과 임신경험이 없는 그룹의 첫 성관계 연령을 비교했을 때, 임신경험이 있는 그룹의 평균 첫 성관계 연령이 임신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첫 성관계 연령, 대상자, 첫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결과는 한영주(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 결과다.

10대 미혼모들의 반복임신비율이 22.3%로 나타난 결과는 Ford(1983)가 미국의 10대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두 번째 임신을 경험한다고 보고 이들의 반복임신 가능성을 지적한 것과 일치된 결과다(Roosa, 1991). 또한 10대 미혼모들이 임신해결책으로 인공유산을 선택하고 있는 결과는 Moore(1990)가 미국은 1989년 한해동안 10대 미혼모가 백만이 넘고, 그중 50만이 출산하고 40만이 넘게 낙태를 한다고 보고하면서, 미국의 10대 미혼모들이 인공유산을 임신해결책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본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26.2%가 성폭행이나 성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Butler와 Burton(1990)의 연구에서 조사자의 54%가 성폭행이나 성 학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것보다는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집안친척에 의한 성폭행이 11.8%로 나타난 것은 Humen(1981)이 10대 미혼모의 임신 중 친족에 의한 근친상간 비율이 45%라고 보고한 것보다는 적은 비율이다. 이런 차이는 한국과 미국간의 문화적 차이로 볼 수 있고, 비록 우리나라의 성폭행, 성 학대 및 근친상간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우리나라 성폭행이나 성 학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근친간의 성폭행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로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대 미혼모들의 임신정황에 대한 결과에서, 10대 미혼모들이 임신사실을 안 시기가 실질적으로 인공유산이 불가능한 5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공유산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임신사실을 모르고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1.5%인

것과 일치되는 결과다. 또한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가 피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41.5%, 피임기구를 사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23.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움(62.3%), 죽고싶은 심정이었다(22.3%)고 응답하고 있다.

한편 아기아버지와와의 관계에서 첫 성관계 대상자와 아기아버지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59.2%로 10대 미혼모의 개방적인 성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 참여시점에 있는 10대 미혼모들은 임신 8개월 이상이 59.3%이고, 분만상태가 31.5%로 이들은 대부분 분만시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미혼모 시설이나 아동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아버지를 만난 경위는 친구소개가 57.7%로 가장 많고, 우연히 만남도 24.6%나 되었다. 아기아버지 나이는 20-24세가 47.7%로 가장 많았지만 19세 이하도 37% 이었고, 아기아버지의 79.2%가 미혼으로 10대 미혼 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기아버지의 67%는 고교중퇴 및 졸업이상의 학력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기아버지의 직업은 무직 및 가사(26.2%), 피고용인(12.3%), 단순 노동 직(10.8%)등 49.3%가 하위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기아버지와 성관계를 갖게된 동기도 사랑하는 사이여서 자연스럽게(55.4%), 순간적인 충동으로(24.6%)등 강제적인 면보다는 사랑이나 결혼을 전제로 한 성관계에 의한 임신이 많았지만 결혼까지 기다리지 않고 성관계를 먼저 하는 개방적인 성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임신사실에 대해서는 64.6%가 아기아버지에게 알렸으며,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이미 헤어진 뒤라(28.3%), 아무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21.7%),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서(21.7%)순으로 나타났다. 알고 난

후 아기아버지의 태도는 유산강요(26.2%), 결혼하자고 함(23.8%), 입양시키라고 함(14.3%), 소식이 끊어졌다(9.5%)등 54.8%의 미혼부들이 혼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려는 무책임한 성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임신사실을 안 시기가 인공유산이 불가능한 5개월 이상이 33%인 결과는 주연옥(1997)의 44.8%, 한영주(1998) 연구의 43.3%의 10대 미혼모가 임신사실을 5개월 이후에 알았다고 응답한 것보다는 낮은 비율로서, 이런 차이는 임신확인 방법의 발달로 이전보다는 10대 미혼모들이 자신의 임신사실을 빨리 알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김부자(1986)의 연구에서 피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20.9%, 피임기구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62.8%인 것과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김부자(1986)의 연구에 참여한 미혼모들보다 본 연구에 참여한 10대 미혼모들이 피임지식이 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부자의 연구에 참여한 미혼모 중에는 10대 보다는 피임지식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20대 미혼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한영주(1998)의 연구에서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움(42.2%), 죽고싶음(20.6%) 순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비율이 본 연구의 두려움(62.3%), 죽고싶음(22.3%)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차이는 한영주의 경우 20대를 포함한 경우이므로, 10대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볼 때 이들이 훨씬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미혼 부의 나이가 20-24세가 47.7%, 19세 이하의 10대 미혼부가 37%로 나타난 결과는 주연옥(1997)과 Adams, Taylor와 Pittman(198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 결과다. 이들 연구자들은 모두 미혼 부의 대다수는 20대 초반이고, 10대 미혼 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혼 부의 대부분(67%)이 고교중퇴 및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주연옥(1997)의 연구결과에서 미혼 부 학력이 65.7%가 고졸이고 대졸도 10.4%로, 본 연구 결과보다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는 주연옥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고, 본 연구는 전국적인 10대 미혼모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두 연구의 표본 집단의 지역적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연옥은 미혼 부 직업이 무직(35.8%), 학생(22.4%), 생산직(19.4%) 순으로 대체로 단순생산직, 학생이 대부분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연옥(1997)의 연구에서 10대 미혼모의 경우 아기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게 된 동기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47.5%), 순간적인 충동으로(15.0%)순으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비율에 있어서는 본 연구결과가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있어, 10대 미혼모들이 이전 보다 사랑이나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약간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신사실에 대해 64.6%의 10대 미혼모가 아기아버지에게 알린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주연옥(1997)의 연구와는 약간 차이나는 결과인데, 주연옥의 연구에서 19세 이하 미혼모들은 50%만이 미혼 부에게 임신을 알리고있고, 알렸을 때 미혼 부 반응도 입양을 권함(47.2%), 유산을 권함(30.6%), 결혼하자와 소식이 끊겼음(11.1%)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결과

의 차이는 10대 미혼모들의 경우 혼자서 임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미혼 부와 함께 해결하길 바라는 미혼모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 부 반응도 일방적인 입양이나 유산 권유보다는 결혼을 통해 아기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여전히 많은 미혼부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임신 후 사회적 지지에서 10대 미혼모들은 가족이나 친척(29.2%)보다는 친구(51.5%)와 더 많이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신사실을 가족이 알게된 경위는 우연(35.4%)과 말하지 않았다(22.3%)가 본인이 알린 경우(28.5%)보다 많았으며, 임신사실을 가족이 알게된 후의 반응은 무관심이나 냉대보다는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준 경우가 73.8%로 더 많았다. 또한 임신사실을 안 후 어머니의 아기에 대한 조치는 입양권유(55.4%)가 가장 많았고, 아기아버지와 결혼해서 함께 키우게 했을 것이다(20.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신사실에 대해서 학교는 전혀 몰랐다(47.3%), 퇴학(10.9%), 휴학(5.5%)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상의한 경우가 51.5%로 나타난 결과는 주연옥(1997)이 친구와 상의한 10대 미혼모가 47.5%라고 보고한 것보다는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0대 미혼모들은 가족이나 친척보다는 친구를 더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 보고있다는 점에서 일치된 결과다. 또한 이런 결과는 친구집단은 특히 정서적 측면에서 10대 미혼모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Richardson, Barbour와 Bubenzer(199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 결과다.

임신사실을 안 후 어머니의 아기에 대한조치

로 입양권유(55.4%)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는 Leynes(1980)가 입양을 위해 아기를 포기하는 결정은 10대 미혼모의 어머니의 영향과 높은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또한 임신사실에 대해서 학교는 전혀 몰랐다(47.3%), 퇴학(10.9%), 휴학(5.5%)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Sung과 Rothrock(198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다. 미국에서는 퇴학대신 10대 미혼모들이 계속 공부 할 수 있도록 건강진료 및 영양 서비스, 탁아 등을 포함하는 10대 미혼모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로 이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제도(Sung & Rothrock, 1980)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과 미국의 10대 미혼모에 대한 문화적, 교육 제도적 차이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퇴학대신 10대 미혼모들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함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출산 후 아기에 대한 장래계획은 76.9%가 입양을 선택하고 있고, 양육하겠다는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울 수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36.9%), 아기장래를 위해서(20.8%) 순이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의 계획에서 우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공부할 계획을 계속하고 싶다가 57.7%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서대문구청(1995) 조사에서 86%가 입양을 선택한 것과는 차이나는 결과이며, 애란 원(1999)의 조사에서 10대 미혼모 중 90%가 입양을 선택하고 10%가 양육을 선택한 것보다도 차이나는 결과다. 이런 차이는 서대문구청의 86%의 입양선택 속에 20대 미혼모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이며, 애란 원의 90% 속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10대 미혼모가 포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특히 본 연구의 양육희망자 비율이 9.2%인 것은 애란 원의

10대 미혼모조사에서 양육희망자가 96년 0.5%, 97년 2%, 99년 10%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과 일치하는 결과로 앞으로 양육희망자들에 대한 양육비보조, 직업알선, 탁아서비스 등이 강화 되어 함을 시사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2) 10대와 20대 미혼모의 특성 차이

임신관련 요인들에 대한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은 연령과 학력을 제외한 결혼상태, 부모님생존여부, 가족의 수입, 종교에 차이가 없는 동질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한영주(1998)의 연구결과 중 결혼상태, 부모님생존여부, 종교 등은 일치된 결과지만 아버지의 학력과 가족의 수입에 따라 10대와 20대간 자존 감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의 차이는 한영주의 연구에서 아버지 학력과 가족수입을 자존 감이라는 단일임신요인과의 비교 속에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앞으로 추후연구를 통해 이런 요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2. 결론

지금까지 논의 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10대 미혼모특성에 관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대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특성으로 볼 때, 10대 미혼모 비율은 20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미혼모의 연령은 비교적 낮았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정상가정 출신이고, 저소득출신이지만, 중류이상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10대 미혼모문제는 결손가정이나 저소득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가정의 모든 10대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이들의 학력은 1/2이 중학교중퇴 및 졸업으로 이들의 임신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10대 미혼모들은 대부분 16-19세 사이에 첫 성관계를 하며, 가볍게 혹은 처음 만난 대상자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첫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77.7%) 이번이 첫 임신이었지만 상당수가 이전에 임신한 경험이 있어(22.3%) 반복적으로 임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공유산을 임신해결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 성폭행, 성 학대 경험(26.2%)이 있었고, 친척에 의한 성폭행도 나타나(11.8%) 근친간의 성 윤리가 문제시 되고 있다. 현재임신정황은 임신사실을 처음 안 시기가 인공유산이 불가능한 5개월 이상이 가장 많았고, 이는 인공유산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임신사실을 모르고 시기를 놓쳤기 때문인가 가장 많은 것과도 일치한다. 아기아버지의 나이는 20-24세(47.7%)가 가장 많았지만 19세 이하의 미혼부도 많아(37%) 10대 미혼 부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아기아버지 학력은 고교중퇴 및 졸업이 가장 많고(58.5%), 대부분(49.3%) 하위 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아버지와 성관계를 한 동기는 사랑이나 결혼을 전제로 한 성관계로 인한 임신이 가장 많았지만 결혼까지 기다리지 않고 성관계부터 하는 개방적인 성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임신 후 사회적 지지는 임신사실을 안 후 가족보다는 친구와 더 많이 상의했으며, 일단 가족이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무관심, 냉대보다는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준 경우가 더 많았다. 출산 후 장래계획은 대부분 아기를 입양시키길 원했으며(76.9%), 적은 수(9.2%) 만이 양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요인에

대한 차이점은 10대와 20대는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서 연령과 학력만 다른 동질집단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이 10대 미혼모이며,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교집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일반적인 10대청소년들과 연령과 학력을 제외한 결혼상태, 부모님생존여부, 가족의 수입, 종교 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는 시설에 수용된 10대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단순히 이들의 임신 특성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10대 미혼모와 20대 미혼모간의 혼전 성 태도, 자아존중 감, 혼전 성 행동 등 보다 다양한 임신관련 요인들에 대한 차이점을 알기 어렵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에 소재 한 미혼모기관에 수용된 미혼모와 우리나라 4대 전문아동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외적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로 10대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했기 때문에 10대 미혼모에 대한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및 임신정황 등을 자세히 파악 할 수 있고, 아울러 10대와 20대의 사회인구학적인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 한국 미혼모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10대 미혼모의 임신에 따른 심리적 갈등은 물론이고, 아기문제해결 및 장애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 등도 함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혼모시설과 아동 전문상

담기관에서 이들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보다 효과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10대 미혼모의 특성 및 임신정황에 대해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추후연구와 복지행정 및 정책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이들에 대해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측정 방법을 질문지조사법에 국한시키지 말고, 일대일 개별 상담, 관찰 등을 통한 질적인 연구를 하는 등 보다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해볼 필요가 있다.

2) 복지행정 및 정책을 위한 제언

첫째,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10대 미혼모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유아나 초등학교시기에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집단적인 교육의 형태로 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하지만 혼전 성 태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청소년시기에는 더 이상 금욕만을 강조하는 성교육에서 벗어나 피임지식, 인간의 생식에 대한 지식, 생명의 존엄성, 성병에 대한 경고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미 임신, 출산한 10대 미혼모에 대해서는 반복임신을 막고, 출산이후 적응을 돕기 위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및 집단 심리치료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중재 프로그램들이 개발 되어야 하며, 직업교육, 부모교육 등을 포함하는 좀더 포괄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강순천(1989). 한국 부녀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영숙 . 이임정(1976). 미혼모 발생원인과 영향. 사회복지연구, 10, 121-139.
- 김근조(1984). 미혼모와 그 자녀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부자(1986). 미혼모의 가정환경과 성 태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숙(1998). 미혼모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홍주 외(1993). 미혼모 정책에 대한 여성적 비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25, 이화여자대학교.
- 보건복지부(1999). 아동보호 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1999). 여성복지 시설현황. 보건복지부.
- 서대문구청(1995).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서울 : 서대문구청.
- 서울시 부녀복지 연합회(1996). 한국 미혼모 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 : 서울시 부녀 복지연합회 교육연구실.
- 양인순(1988). 미혼모의 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유박(1980). 한국의 미혼모 문제와 그 대책.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금주(1994). 한국의 미혼모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 이석재(1985). 미혼모의 발생 원인과 그 자녀의 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성하(1989). 미혼모 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애란원 (1995). 애란 원소식(봄호). 애란원.
- 주연옥(1997). 일부 보호시설에 등록된 미혼모의 특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여성개발원(1984). 미혼모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한영주(1998).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자존 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옥자 . 윤미현(1996). 한국미혼모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 동국논총(동국대학교), 35, 219-247.
- Adams, G., Taylor, A. S., & Pittman(1989). Adolescent pregnancy and parenthood; A review of the problem, solution and resources. *Family Relations*, 38, 223-229.
- Barro, K. H. (1984). The body image of a primigravda following caesarean delivery. *Issues in Health Care of Women*, 6, 367- 376.
- Butler, J. R., & Burton, L. M. (1990). Rethinking teenage child-bearing; Its sexual abuse a missing link. *Family Relations*, 39, 73-80.
- Cicchetti, D., & Garmezy, N.(Eds.) (1993). Special Issue : 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of resil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497-783.
- Donnelly, B., & Voydanoff, P. (1991). Factors associated with releasing for adoption among adolescent mothers. *Family Relations*, 40, 404-410.
- Douglas, B. (1997). Parenting teenage parents; A clinician's note. *Family Relations*, 46, 186-189.
- Humen, J. L. (1981). *Father-daughter incest*. Cambridge, M A : Harvard University Press.
- Levering, C. S. (1983). Adolescent pregnancy programs collection; An introduction. *Child Hood Education, January/February*, 182-185.
- Moore, K. A. (1990). *Facts at Aglance 1990*. Washington, DC : Child Trends.
- Morgan, C., Chapar, G. N., & Fisher, M. (1995). Psychological variables associated with teenage pregnancy. *Adolescence*, 30, 277-289.

- Pitterman, K. (1986). *Prouenting adolescent pregnancy : What schools can do*. Washington DC : Children's Defense Fund.
- Richardson, R. A., Barbour, N. B., & Bubenzer, D. L. (1991). Bittersweet connection : Informal social networks as sources of support and interference for adolescent mother. *Family Relations*, 40, 430-434.
- Roosa, M. W. (1991). Adolescent pregnancy programs collection; an introduction. *Family Relations*. 40, 370-372.
- Saltz, E., & Ager, J. (1997). *Predicting teenage pregnancy*. Presented at Maternal and Child Health Roundtable, Rockville, Maryland.
- Sung, K. T., & Rothrock, D. (1980). An alternative school for pregnant teen-agers and teen-age mothers. *Child Welfare*. 59, 427-436.
- Sylvester, K. (1997). Preventable calamity : How to reduce teenage pregnancy. *Family Relations*. 125, 32-35.
- Voydanoff, P., & Donnelly, B. W. (1990). *Adolescent sexuality and pregnancy*. Newbury Park, CA : Sage.
- Wazak, C. (1990). *Public costs of teenage child bearing*. TEC ETWORKS, 27, 3.